

##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의 비교

한미영      안서원†  
강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그 차이를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30대 미혼과 기혼 여성의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를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에게 가상의 30대 미혼/기혼 여성의 주관적 안녕에 대해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를 하게 하여 두 평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대학생이 보이는 두 평가 간의 차이가 연구 1의 30대 여성의 차이와 그 양상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30대 여성의 경우 기혼이 미혼보다 전반적 평가에서 자신의 주관적 안녕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화적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두 평가 간의 차이는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30대 여성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규범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대학생들은 30대 여성보다는 결혼을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에서의 세대 간 차이가 주관적 안녕의 두 평가 간의 차이에도 반영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결혼, 주관적 안녕, 전반적 평가, 일화적 평가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미혼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0년 2월 26일).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2010)에 따르면,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로 미혼 여성의 46.8%만이 결혼을 원하고, 절반인 50.0%는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즘의 젊은 부부는 결혼생활 만족도가 과거 세대에 비해 더 낮은 반면 성역할에 따른 갈등수준은 더 높다고 한다(Rogers & Amato, 1997, 2000). 특

히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 소위 워킹맘의 경우에는 ‘자녀돌보기’, ‘집안일’ 등에 대해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전업주부나 직장남성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운,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이와 같이 결혼과 행복의 관계가 점점 변하여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여기는 미혼여성이 증가하고, 육아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면 출산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0년 6월 14일). 이렇듯 기존 연구나 여러

† 교신저자: 안서원, (139-743) 서울시 노원구 공릉길 13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융합학부 글로벌테크노경영프로그램, 전화: 02)970-6484, E-mail: sahn@seoultech.ac.kr

사회 통계는 결혼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주관적 안녕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예,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전반적 평가와 어제 하루의 기분이 어땠는지와 같이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해 평가하는 일화적 평가)에 따라 보고된 주관적 안녕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규범적 사고가 전반적 평가에 보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규범적 사고를 직접 측정하기보다 결혼 여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전반적 평가에 규범적 사고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평가방법의 차이가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규범적 사고의 변화를 반영하는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다른 세대(30대와 20대)의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알아보려고 하였다.

####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의 차이

전통적으로 주관적 안녕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 정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에 의존해왔다(Diener, 1984;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식은 응답자가 자신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법이며, 자기 보고식 질문에서 유발될 수 있는 왜곡과 측정 오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전반적 평가가 각 개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정서 상태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예, 장재윤 등, 2007). 이에 기억에 의존하는 전반적인 평가와 달리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에 기초하여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보고하는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과 생태학적 순간 측정법(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상의 순간순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응답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므로 정서를 왜곡하거나 먼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억에 의한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최근 연구들은 보다 간단하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일화적(episodic) 평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화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정서를 보고하는 일상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 DRM)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화적 평가는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6; Schwarz, Kahneman, & Xu, 2008).

그런데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는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실제 경험보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즐거워야 하는지 혹은 불쾌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naive semantic theories)에 보다 기초하기 때문이다(Hsee, Hastie & Chen, 2008; Schwarz 등, 2008). Hsee 등(2008)은 정서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immediate) 평가와 이후 기억에 근거한 회상적(retrospective) 평가 사이의 불일치를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언급된 두 여성의 예를 들어보자. 한 여성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주말을 보냈고, 다른 여성은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며 주말을 보냈다. Hsee 등(2008)은 코미디를 보며 주말을 보낸 여성은 아기 엄마보다 경험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좋게 하겠지만 회상을 통한 평가에서는 아기를 돌보며 보낸 여성이 보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회상적인 평가에서 사회적 규범이 보다 영향을 미쳐,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장은 힘들지만 회상을 통해 되돌아보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Schwarz 등(2008)의 연구에서도 현재의 순간적인 운전 경험에서는 BMW를 운전한 사람과 Honda나 Ford를 운전한 사람과의 차이가 없지만, 회상적인 평가에서는 BMW 운전자가 보다 저렴한 차의 운전자보다 자신의 운전 경험을 더 즐거웠

던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그들은 경험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에서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회상을 통한 평가나 그 이후의 선택은 사회적 기대나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Kahneman 등(2006)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DRM으로 하루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게 한 후 여러 행위들에 대한 정서가를 평가하게 하였는데, 자신의 아이와 시간보내기가 가장 즐겁지 않은 행위들(예, 일하기, 집안일, 통근하기)과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반면 전반적 평가를 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자신의 아이와 시간보내기가 가장 즐거운 활동 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예, Juster, 1985). 이는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기초한 전반적 평가와 구체적인 일화('그러나 어젯밤 아이는 나를 정말 힘들게 했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와 Stone(2004)의 연구에서는 기혼/이혼 여부가 어제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정서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가와 유의하게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혼여성은 기혼여성보다 일상 행위들에 대한 정서 평가를 더 높게 한 반면, 기혼여성은 이혼여성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는 결혼, 이혼과 같은 자신의 상황이 통상적인 사회적 기준에 빚대어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체적인 일화에 기초한 정서적 평가는 이러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Kahneman 등(2004)은 이를 초점 가설(focusing hypothesis)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전반적 평가를 할 때 자신의 상황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혼여성이 일상에서의 실제 경험은 오히려 기혼여성보다 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는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하다 보니 전반적 평가에서는 기혼여성보다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화적인 평가가 하루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경험들이 포함된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더 잘 예측하는 반면, 전반적인 평가는 실제 경험에 대한 평가와는 다소 상관이 낮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규범적 신념을 반영하

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Robinson과 Clore(2002)는 이러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의 차이를 접근가능성 모델(accessibility model)로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보고할 때 정서보고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면 정서보고의 결과도 정서보고의 유형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다. 정서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의 유형에는 모두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실시간 정서보고(online emotion reports), 생리적 증후에 대한 실시간 보고(online reports of physiological symptoms), 회상적 정서보고(retrospective emotion reports), 예상된 정서보고(prospective emotion reports), 가상적 정서보고(hypothetical emotion reports), 시간 포함 정서보고(time inclusive emotion reports)<sup>1)</sup>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보고를 하는 데 있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는 체험 정보(experiential information), 일화 기억(episodic memory), 상황 관련 믿음(situation-specific belief), 정체성 관련 믿음(identity-related belief)이 있다. 예를 들면, 생일잔치를 하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것은 실시간 정서보고에 해당하며, 이때는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정서에 접근 가능하므로 이를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만난 친구가 한 달 전에 있었던 생일잔치가 어땠느냐고 물어볼 때는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이들은 정서 자체가 기억에 저장되고 인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정서경험을 한 과거 일화를 기억해내고 기억해낸 것에 기초해 정신적으로 재현(reenacting)할 수는 있지만 정서 자체가 기억에서 인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실제 경험과 보고 사이에 시간이 경과되면 정보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보 손실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 것이 정서에 대한 규범적 신념이나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이라고 제안한다. 상황 관련 믿음과 정체성 관련 믿음이 이에 해당하는데, 상황 관련 믿음은 일화기억이 아니라 상황

1) 이는 한 시간, 하루, 한 해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느낀 전반적인 정서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어떻게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이다. 즉 생일날에 대한 별다른 기억이 없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 관련 믿음에 기초해 즐거웠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상황과 관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신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체성 관련 믿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즉각적이거나 일화적인 평가는 실시간의 정서 상태에 보다 가까운 반면, 회상적이거나 전반적인 평가는 평가되는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 또는 사회적 규범에 보다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 미·기혼 여성의 일상 경험에 대한 일화적 평가와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전반적 평가가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상식(naive theory)이나 규범적 사고(normative beliefs)의 영향으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연구 1), 이러한 차이가 향후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20대 대학생에게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연구 2). 즉 대학생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30대 여성의 삶을 평가할 때도 일화적 평가와 전반적 평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대학생이 보이는 두 평가 간의 차이가 30대 여성이 보이는 차이의 양상과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연구 1

본 연구 1에서는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규범적 사고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해 30대 미혼과 기혼여성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차이의 양상에 기초하여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30대 여성의 규범적 사고를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만약 일화적 평가에서는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없는데 반해, 전반적 평가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30대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규범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연구 1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들의 지인들로부터 30대 여성들을 소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총 210명의 응답을 얻었는데, 이 중 미혼여성은 130명, 기혼여성은 80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3.6세( $SD=2.97$ )였고, 미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3.0세( $SD=2.98$ ),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4.6세( $SD=2.71$ )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기간은 7.41년( $SD=3.92$ )이었다.

### 측정변수들

#### 전반적 평가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을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회상적 경험 측면에서의 전반적 평가는 주관적 안녕의 세 지표인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7점 척도로(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긍정과 부정 정서경험은 ITAS(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 척도를 번역하여 7점 척도(1=전혀 느낀 적이 없다, 7=항상 느꼈다)로 측정하였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Diener, Smith, & Fujita, 1995).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 ITAS 척도 중 긍정 정서의 신뢰도 계수는 .94, 그리고 부정 정서는 .94로 나타났다.

#### 일화적 평가

보다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 측면에서의 일화적인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Kahneman 등(2006)의 연구에서 소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직장과 집에서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일상적 기분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DRM보다 간단하게 일화적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DRM처럼 어제 하루의 구체적인 경험을 모두 기술한 후 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기분을 피센티지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하루 동안 발생했

던 일상적인 활동 경험의 빈도 및 강도에 근거하여 응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늘 직장(집)에서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봅시오. 오늘 직장(집)에

서 귀하의 기분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기분이 나쁨’, ‘어느 정도 기분이 나쁨’, ‘기분이 좋음’, ‘매우 기분이 좋음’의 전체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자신의 기분을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의 분석은 Kahneman 등(2006)의 연구에서처럼 ‘매우 기분이 나쁨’과 ‘어느 정도 기분이 나쁨’의 총합을 오늘 하루 집(직장)에서의 부정 기분으로, ‘어느 정도 기분이 좋음’과 ‘매우 기분이 좋음’의 총합을 오늘 하루 집(직장)에서의 긍정 기분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미 혼	기 혼	전 체
학 력	고졸	11(8.5)	7(8.8)	18(8.6)
	대졸	78(60.0)	64(80.0)	142(67.6)
	대학원졸	39(30.0)	9(11.3)	48(22.9)
	무응답	2(1.5)	-	2(1.0)
직 업	사무직	37(28.5)	14(17.5)	51(24.3)
	기술/엔지니어	3(2.3)	1(1.3)	4(1.9)
	교사(초/중/고)	13(10.0)	3(3.8)	16(7.6)
	공무원	36(27.7)	39(48.8)	75(35.7)
	전문직	22(16.9)	3(3.8)	25(11.9)
	개인사업	2(1.5)	-	2(1.0)
	무직/전업주부	1(0.8)	13(16.3)	14(6.7)
	기타	11(8.5)	7(8.8)	18(8.6)
	무응답	5(3.8)	-	5(2.4)
월소득/가계소득	100만 원 미만	4(3.1)	-	4(1.9)
	100~150만 원	17(13.1)	4(5.0)	21(10.0)
	150~200만 원	46(35.4)	11(13.8)	57(27.1)
	200~300만 원	42(32.3)	11(13.8)	53(25.2)
	300~400만 원	16(12.3)	16(20.0)	32(15.2)
	400~500만 원	1(0.8)	17(21.3)	18(8.6)
	500~600만 원	2(1.5)	8(10.0)	10(4.8)
	600~700만 원	-	5(2.4)	5(2.4)
	700~800만 원	-	3(1.4)	3(1.4)
	800만 원 이상	-	5(2.4)	5(2.4)
무응답	2(1.5)	-	2(1.0)	
종 교	무교	57(43.8)	32(40.0)	89(42.4)
	기독교	34(26.2)	25(31.3)	59(28.1)
	천주교	20(15.4)	13(16.3)	33(15.7)
	불교	15(11.5)	9(11.3)	24(11.4)
	무응답	4(3.1)	1(1.3)	5(2.4)
자녀수	없음	-	20(25.0)	20(9.5)
	1명	-	18(22.5)	18(8.6)
	2명	-	36(45.0)	36(17.1)
	3명	-	6(7.5)	6(2.9)
전 체		130(100)	80(100)	210(100)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연령, 수입, 교육, 직업, 결혼, 종교 등)을 측정하였고 이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결 과

#### 전반적 평가

결혼 여부에 따라 전반적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력과 소득을 공변인으로 두고 주관적 안녕의 각 지표별로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서만 공변인 중 학력이 유의하였고( $F(1, 204)=10.91, p<.01$ ), 나머지 지표에서는 공변인이 유의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에서 나타난 공변인의 영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학력과 결혼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두고 변량분석을 한 결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2, 208)=5.14, p<.01$ ). 상호작용의 양상은 30대 미혼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기혼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별 평가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는데, 삶의 만족도는 학력과 결혼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둔 변량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공변량 분석 결과로 결혼 여부에 따른 긍정정서의 평균은 학력 4.15, 수입 4.24에서 추정된 평균이고, 부정정서의 평균은 학력 4.15, 수입 4.23에서 추정된 평균이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기혼과 미혼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p=.10$ ), 기혼이 미혼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긍정 정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부정 정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의 행복도가 미혼자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Argyle, 1987; Diener & Lucas, 1999; Myers, 2000), 전반적 평가에서 기혼여성들의 주관적 안녕이 높음을 보여 준다. 특히 결혼 여부가 삶의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평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긍정 정서나 부정 정서와 같은 정서적 평가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미혼여성 대 기혼여성의 주관적 안녕 세 지표에서의 추정된 평균(표준오차)

구분	미혼	기혼	df	F
삶의 만족도	3.69(.13)	4.08(.19)	202	2.68
긍정 정서	3.84(.11)	4.65(.14)	201	16.84***
부정 정서	3.10(.10)	2.67(.13)	200	5.91*

\* $p < .05$ , \*\*\* $p < .001$

### 일화적 평가

결혼 여부에 따른 오늘 하루 직장과 집에서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이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 응답자의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무직/전업주부(14명)나 무응답자(5명)의 응답은 포함하지 않았다. 공변량분석 결과 공변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3에 제시된 직장에서의 정서 평균은 학력 4.18, 수입 4.15에서, 집에서의 정서 평균은 학력 4.18, 수입 4.14에서 추정된 값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직장이나 집에서

표 3. 미혼여성 대 기혼여성의 일화적 평가에서의 추정된 평균(표준오차)

구분	미혼	기혼	df	F
직장_긍정	66.4(2.64)	75.6(4.01)	187	3.14
직장_부정	33.6(2.65)	24.0(4.02)		
집_긍정	79.2(2.11)	84.7(2.88)	187	3.38
집_부정	20.8(2.03)	14.6(2.78)		

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양상은 전반적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긍정 정서는 약간 높고 부정 정서는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결혼 여부에 따른 일화적 평가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 1의 결과는 전반적 평가에서는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주관적 안녕이 대체로 높은 반면, 일화적 평가에서는 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하루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경험들이 포함된 일화적 평가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이나 규범적 신념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30대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30대 미·기혼 여성의 주관적 안녕을 전반적/일화적으로 평가할 때도 두 평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두 평가 간의 차이가 연구 1의 30대 여성들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결혼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고 대학생에게는 아직 결혼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혼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1의 30대 여성보다는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약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1의 일화적 평가는 응답자의 하루 경험에 기초해 평가될 수 있었지만 연구 2의 대학생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이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가상적인 정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전반적 평가로는 가상적으로 제시된 30대 여성의 일화에 기초

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였고, 일화적 평가로는 제시된 여성의 그날 기분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런데 연구 1의 30대 여성은 경험자로서 미혼이든 기혼이든 자신의 경험만을 평가하는 단독평가 모드(single evaluation mode)에서 삶의 만족도와 정서를 평가할 수 있지만, 연구 2의 대학생은 자신의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동시평가 모드(joint evaluation mode)에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Hsee & Hastie, 2006). 즉 대학생들에게 30대 여성에 대해 평가하게 하는 경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혼과 미혼이라는 가능한 두 대안을 고려하고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두 개를 모두 평가하는 경우 평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가상의 일화를 각기 다른 순서로 제시하고(기혼-미혼, 미혼-기혼)(Moore, 1999), 각 순서에서 한 대안을 본 후에 두 번째로 평가한 대안만을 비교하였다(기혼-미혼, 미혼-기혼). 왜냐하면 두 번째로 평가한 미혼과 기혼에 대한 평가가 동시평가 모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1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모두 여성이었지만 연구 2에서는 가상적인 여성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응답자를 여성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남녀 대학생이 참여하였고, 대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Hsee 등(2008)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는 이미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부정적 정보만을 제시하여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힘들게 주말을 보낸 여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 정보, 긍정적 정보, 중립적 정보를 제시하였다. 중립 조건에서는 나이와 결혼 여부 외의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고 기혼 부정-미

혼 긍정, 기혼 긍정-미혼 부정에서는 Hsee 등(2008)의 연구에서처럼 기혼과 미혼의 일화가 반대가 되도록 하여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5). 기혼 긍정-미혼 긍정, 기혼 부정-미혼 부정은 중립 조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여 별도의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전반적 평가에서는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가 더 반영될 것이라고 보았고 일화적 평가는 제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일화와 평가방법에 따른 결혼 여부의 평가 차이가 표 4에서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보았다. 결혼을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는 연속적이겠지만 예측의 편의상 기혼을 규범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미혼을 규범으로 생각하는 경우로 이분하여 예측하였다.

사람들이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면(표 4의 사회적 규범의 내용이 미혼<기혼인 경우) Hsee 등(200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평가에서는 기혼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화적 평가에서는 제시된 일화의 내용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반면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면(표 4의 사회적 규범의 내용이 미혼>기혼인 경우) 전반적 평가에서는 미혼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일화적 평가는 제시된 일화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았다. 중립조건의 경우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화적 평가는 비슷하게 평가되고 전반적 평가는 규범의 방향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방 법

### 실험 참가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교의 대학생 229명이 참

표 4. 사회적 규범의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일화별 기혼과 미혼의 차이

사회적 규범의 내용	기혼 부정		기혼 긍정		중립	
	전반적	일화적	전반적	일화적	전반적	일화적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가하였다. 남학생은 99명(43.2%), 여학생은 130명(56.8%)이었고, 평균 연령은 20.73( $SD=2.37$ )세였다. 229명은 각 일화 조건에 표 5와 같이 할당되었다.

### 실험 자극

본 연구에서는 30대 미혼 직장여성과 30대 기혼 직장여성의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기술한 일화를 사용하였다. 이 일화는 Hsee 등(2008)의 연구에 기초하였고, 일화의 내용은 기혼 부정(미혼 긍정), 기혼 긍정(미혼 부정), 중립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각 조건의 구체적인 일화는 표 5에 제시하였다.

### 실험 절차

본 연구 2에서는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두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연구자로부터 설문지의 뒷장은 미리 보지 말고 첫 장부터 차례대로 응답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설문지에는 참가자들에게 30대 미혼 직장여성과 30대 기혼 직장여성의 하루 일상을 간략하게 기술한 일화를 제시하였고 일화의 제시 순서를 달리하였다. 한 조건에서는 첫 페이지에 30대 미혼 직장여성의 일상을 기술한 일화를 먼저 제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30대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을 기술한 일화를 제시하였다(미혼-기혼 조건). 다른 조건에서는 첫 페이지에 30

대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을 기술한 일화를 먼저 제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30대 미혼 직장여성의 일상을 기술한 일화를 제시하였다(기혼-미혼 조건). 일화의 평가순서는 일화 유형과 교차되어 모두 6개의 피험자간 조건이 있었다(표 5).

### 측정변수들

각각의 제시된 일화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이 여성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은지를 7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7=매우 만족한다) 상에서, 어제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은지를 7점 척도(1=매우 나쁘다, 7=매우 좋다) 상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 평가로, 어제의 기분에 대한 평가는 일화적 평가로 간주하였다. 연구 1에서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그에 대해 일화적 평가를 하는 것이어서 긍정과 부정 기분을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가상의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된 일화에 대해 단편적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일화적 평가도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결 과

세 개의 일화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지각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어제의 기분을 측정한 일화적 평가를

표 5. 실험 일화 예

조 건	일 화
기혼 부정 /미혼 긍정	이 여성은 37세 미혼의 직장인이다. 어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기혼-미혼: n=51). 이 여성은 37세 기혼의 직장인이다. 어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열감이 든 자신의 아이를 돌보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미혼-기혼: n=57).
기혼 긍정 /미혼 부정	이 여성은 37세 미혼의 직장인이다. 어제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고 밀린 빨래를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기혼-미혼: n=28). 이 여성은 37세 기혼의 직장인이다. 어제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 산보를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미혼-기혼: n=31).
중립	이 여성은 37세 미혼의 직장인이다(기혼-미혼: n=31). 이 여성은 37세 기혼의 직장인이다(미혼-기혼: n=31).



미혼과 기혼별로 살펴보았다. 미혼의 경우 일화의 주효과가 있었다( $F(2, 223)=33.44, p<.001$ ). 미혼 긍정(4.81), 중립(4.44), 미혼 부정(3.24)의 순서로 의도한 대로 평가되었고 세 일화 간의 평균 차이도 모두 유의하였다( $p<.05$ ). 기혼 역시 일화의 주효과가 있었고( $F(2, 223)=83.76, p<.001$ ), 기혼 긍정(5.34), 중립(4.81), 부정(3.23)의 순서로 의도한 대로 평가되었고 세 일화간의 평균 차이도 모두 유의하였다( $p<.05$ ).

본 결과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동시평가 모드에 해당하는 조건만 비교하였다. 즉 미혼-기혼의 기혼 조건과 기혼-미혼의 미혼 조건을 비교하였다. 각 일화별로 결혼 여부와 응답자 성별은 피험자간 변인으로 두고, 평가방법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두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모든 일화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구 1과 달리 연구 2는 전반적 평가인 만족도와 일화적 평가인 기분을 동일한 7점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였으므로 이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두어 직접 비교하였다.

먼저 기혼 부정 일화 조건에서는 결혼 여부의 주효과가 있었다( $F(1, 104)=30.42, p<.001$ ). 기혼이 부정적으로 제시된 것에 맞게 미혼(4.84)이 기혼(3.82)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방법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하여 전반적 평가(4.52)가 일화적 평가(4.14)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F(1, 104)=10.41, p<.01$ ). 다음으로는 결혼 여부와 평가방법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04)=56.55, p<.001$ ).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반적 평가에서는 미혼(4.60)과 기혼(4.44)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일화적 평가에서는 미혼(5.09)이 기혼(3.20)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F(1, 104)=134.52, p<.001$ ).

다음으로 기혼 긍정 일화 조건에서는 결혼 여부의 주효과만 있었다( $F(1, 55)=35.74, p<.001$ ). 기혼이 긍정적으로 제시된 것에 맞게 기혼(5.05)이 미혼(3.30)보다 두 평가방법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립 일화 조건에서는 평가방법의 주효과만 있었다( $F(1, 58)=8.64, p<.01$ ). 전반적 평가(5.09)가 일화적 평가(4.79)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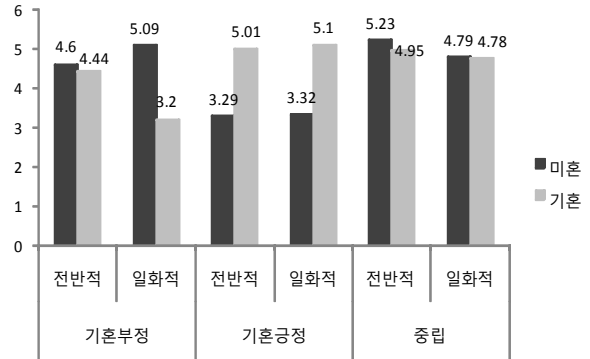


그림 1. 일화별 결혼 여부와 평가방법에 따른 상호작용

### 논 의

표 6에는 표 4에서 예상한 결과와 본 연구 2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들을 보면, 기혼 긍정 조건에서만 두 평가방법에서 모두 미혼보다 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혼을 사회적 규범으로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같은 양상의 결과가 나타났다. 기혼 부정 조건과 중립 조건은 일화적 평가에서만 일화의 내용에 따라 예측한 방향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 평가는 두 조건 모두 미혼이 기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Hsee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을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반적 평가에서는 미혼<기혼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의 일상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었을 때에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두 조건에서는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다소 약함을 보여준다.

한편 표 6의 실제 결과만 보면, 기혼 부정 조건에서만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나머지 두 조건에서는 두 평가방법 간의 차이가 없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평가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규범적 사고보다는 제시된 일화가 전반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사회적 규범의 내용에 따라 예측되는 일화별 기혼과 미혼의 차이와 실제 결과

사회적 규범	기혼 부정		기혼 긍정		중립	
	전반적	일화적	전반적	일화적	전반적	일화적
예측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실제 결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미혼=기혼

\* $p<.05$ 

###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를 비교하였다. 연구 1의 결과는 전반적 평가에서는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화적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기존 연구의 주장에서처럼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가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연구 1의 30대 여성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규범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이 30대 미·기혼여성의 일상을 묘사하는 일화에 대해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를 하였다. 30대 기혼여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기혼 긍정 조건에서만 결혼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결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두 조건(기혼 부정, 중립 조건)의 전반적 평가는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결혼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규범적 사고가 다소 약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연구 1과 연구 2에서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의 변화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와 그 양상이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간의 차이가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나 가상의 인물에 대해 평가할 때 모두 나타나며, 그 차이가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전반적 평가에서 규범적 사고가 보다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장재윤 등(2007)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기혼

남녀 직장인과 전업주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화적 평가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 보다 기초한 일화적 평가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보다 반영하는 전반적 평가 중 어느 것이 주관적 안녕의 적절한 평가방법 또는 기준이 되는지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는 향후 주관적 안녕의 측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람들의 실제 체험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 중 어느 것이 주관적 안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Kahneman, Fredrickson, Schreiber와 Redelmeier(1993)는 실시간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회상적 평가간의 차이를 보고 하면서, 객관적인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회상적 평가보다는 실시간 경험이 규범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Wilson과 Gilbert(2005) 또한 정서 예측과 관련된 여러 인지적 오류를 보고하면서 미래 시점에서 느끼는 실제 경험이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이 됨을 시사한다. 그런데 Robinson과 Clore(2002)는 실시간으로 느끼는 체험을 보고하는 것과 상황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믿음에 기초한 정서보고의 차이를 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관점을 달리한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들 평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실제의 정서 경험 못지않게 정서 경험에 대한 믿음도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실제 체험은 힘들고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미래 사

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반면 결혼을 하면 나를 희생해야 하고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경험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Fraser & Gaskell, 1990; Furnham, 1988). 그러므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느끼는 정서뿐 아니라 정서 경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며, 정서 경험에 대한 여러 평가 방식과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전반적 평가와 일화적 평가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1의 일화적 평가에 대한 측정 상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화적 평가는 일상재구성법(DRM)보다 간단하게 일화적 정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 또한 하루에 대해 전반적인 자기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화적 평가는 하루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경험들이 포함된 평가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각각의 활동에 따른 정서 경험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화적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경험에 가까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회상적이거나 전반적인 평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믿음이나 사회적 규범에 보다 기초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현 30대 여성들과 20대 대학생들의 결혼과 주관적 안녕에 대한 일화적 평가와 전반적 평가간의 차이를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규범적 사고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 여성들과 대학생들이 현재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결혼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30대 여성과 20대 대학생들의 평가 차이만으로 결혼 및 결혼과 주관적 안녕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변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혼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사고를 직접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1의 자료 수집은 편의표집을 통해 일부 30대 미혼과 기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표본 수가 크지 않고 일부 특정 직업군이 편포되어 표집되었다.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 및 특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향성이나 신경증과 같은 성격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21-47.
- 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23-139.
- 통계청 (2010). 2010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결과.
- 머니투데이 (2010. 6. 14). “나처럼 살지 마라” 결혼 말리는 엄마.
- 오마이뉴스 (2010. 2. 26).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유티피언 드림 현장을 가다.
- Argyle, M. (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Methuen.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Lucas, R.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 (pp. 213-22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0-141.
- Fraser, C., & Gaskell, G. (1990). *The social psychological study of widespread beliefs*. Oxford, UK: Glendon.
- Furnham, A. (1988). *Lay theories*. London: Pergamon.
- Hsee, C. K., & Hastie, R. (2006). Decision and experience: Why don't we choose what makes us happy? *Trends in Cognition Sciences, 10*, 31-37.
- Hsee, C. K., Hastie, R., & Chen, J. (2008). Hedonomics: Bridging decision research with happiness research.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224-243.
- Juster, F. T. (1985). The validity and quality of time use estimates obtained from recall diaries. In F.T. Juster, & F. P. Stafford (Eds.), *Time, goods, and well-being* (pp. 63-92).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Kahneman, D., Fredrickson, B. L., Schreiber, C. A., & Redelmeier, D. A. (1993). When more pain is preferred to less: Adding a better end. *Psychological Science, 4*, 401-405.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 1776-1780.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 1908-1910.
- Moore, D. A. (1999). Order effects in preference judgments: Evidence for context dependence in the generation of preferenc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8*, 146-165.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Robinson, M. D., & Clore, G. L. (2002). Belief and feeling: Evidence for an accessibility model of emotional self-report. *Psychological Bulletin, 128*, 934-960.
- Rogers, S. J., & Amato, P. R. (1997). Is marital quality declining? The evidence from two generations. *Social Forces, 75*, 1089-1101.
- Rogers, S. J., & Amato, P. R. (2000). Have change in gender relations affected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75*, 731.
- Schwarz, N., Kahneman, D., & Xu, J. (2008). Global and episodic reports of hedonic experience. In R. Belli, F. Stafford, & D. Alwin (Eds.), *Using calendar and diary methods in life event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Wilson, T. D., & Gilbert, D. T. (2005). Affective Forecasting: Knowing what to wa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131-134.

## Comparison of Global and Episodic Evaluations of Subjective Well-being

Miyoung Han

Sowon Ahn

Kangnam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global evalu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was different from episodic one and the difference was interpreted as indicating influence of normative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subjective well-being on global evaluation. In study 1, married and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evaluated their life globally and episodically. In study 2, college students made global and episodic evaluations of subjective well-being of hypothetical married and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Study 2 aimed to see if college students evaluated hypothetical women differently in the two evaluations and the pattern of difference was different from that of women in their thirties in study 1. The results of study 1 showed that married women evaluated their global subjective well-being more highly than single women. However, episodic evalu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not different. The difference in the two evaluations suggests the influence of normative beliefs on global evaluation and the pattern of the difference demonstrates that women in their thirties have normative beliefs that marriage makes their life happier. On the contrary, the results from college students in study 2 showed that the belief in marriage as a norm was somewhat weak. Generational change in normative belief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riage and subjective well-being seemed to be reflected in the differences between global and episodic evaluations.

*Keywords:* marriage, subjective well-being, global evaluation, episodic evalu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4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7월 31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8월 8일